

중국 · 인도 · 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변모하는 아프리카 / 3

II. 중국·인도·일본의 대 아프리카 진출 동향 / 7

III. 중국·인도·일본의 부문별 진출 동향 / 13

- | | |
|----|-----------------------|
| 13 | 1. 자원 개발 |
| 19 | 2. 건설·대형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 |
| 24 | 3. 상품·서비스 등 교역 및 투자 |

IV. 시사점 / 30

요 약

EU와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영향권에 있던 아프리카가 변모하고 있다. 석유·광물자원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인도, 일본 등 자원 소비대국들이 앞 다퉈 아프리카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자원난을 겪으면서, 석유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도 지난 2008. 4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3년 TICAD를 통해 시행해 온 경제 원조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각국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995년 수단의 유전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나선 중국은 막대한 유·무상 원조 제공과 국가지도자의 아프리카 순방 외교활동을 통해 자원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자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또한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독식을 막기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하되 중국의 노골적 진출방식을 의식, 차별화된 접근방식으로 ‘아프리카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5. 10월 AU(아프리카 연합)와 인도 정부간 체결된 ‘Pan African e-Network project’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은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 진출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2007. 10월 ‘아프리카 자원외교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원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건설·대형 플랜트 등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은 막대한 유·무상 원조자금 제공을 통해 수주활동과 연계하고, 현지 금융부문 진출로 중국기업의 수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와 일본도 수출입신용기금 확대와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주요 부문별 아프리카 진출 주요기업

구 분	중 국	인 도	일 본
자원 개발	- CNPC - Sino Steel - Jisco	- ONGC 비데쉬 - ONGC-Mittal - 베단타 그룹	- 신일본석유 - 석유자원개발 - 미쓰비시 상사
인프라 구축	- COVEC(건설) - Citic Acre(플랜트)	- 릴라이언스 그룹 - 예사르 오일 - 타타 그룹	- 히다찌 - 미쓰이상사 - 미쓰비시상사
교역 및 투자	- 화웨이(통신) - 중국공상은행(ICBC) - 치매이 자동차	- 란박시(의약품) - Ranco Systems	- 도요타 - 닛산자동차

이처럼 격화되는 아프리카 시장상황을 감안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진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도 아프리카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 개발과 적극적 시장개척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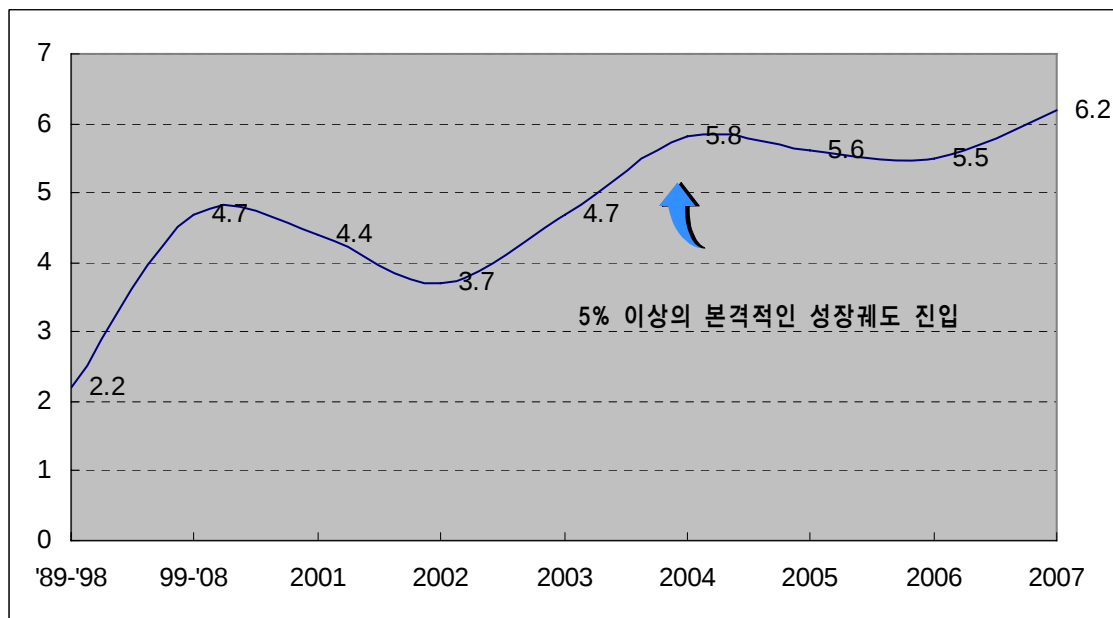
I. 변모하는 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경제적 부상

-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2002년 이후 지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등 원유수출 국가들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교역액도 급증, 1990년대 중반 연간 2,500억 달러대에서 2005년 기준 5,50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
 - 교역규모의 급증은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상승과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때문임.
- 외국인 투자유입액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추세이며, 2006년도의 경우 360억 달러를 유치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아프리카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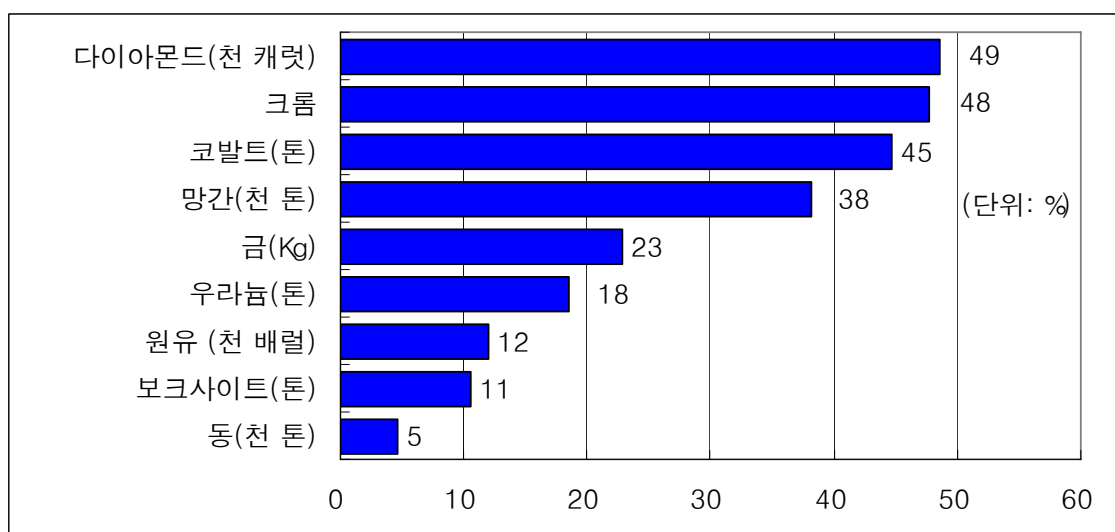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 년도 * 2007년은 예상치

□ 외국인 투자 부르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

- 최근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단연 자원개발임.
 -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아프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및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자원개발을 위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7~8%에 해당하는 1,000억 배럴이 있으며, 산유량도 10년전 일당 평균 750만 배럴에서 현재 약 1,200만 배럴로 확대됨.
- 천연가스도 세계 매장량의 약 8%가 분포하고 있으며, 철,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광물자원 매장량도 풍부함.
 - 천연가스는 주로 EU로 공급되며, 2010년경에는 EU 수요의 약 절반인 7,000만 톤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
 - 광물은 니켈, 코발트, 백금 등 희귀광물을 포함 다양하게 분포하며, 백금은 세계의 90%, 크롬 및 망간은 80%가 아프리카에 편재되어 있음.

주요 광물자원의 아프리카 생산량 비중



자료원 : Mineral Yearbook Vol.III 2006, Area Report: Int'l USA

□ 격화되는 경쟁 구도

- 아프리카 국가는 2차 대전 후 식민지 독립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으로 구 식민종주국인 EU의 영향력이 여전히 큼.
 - EU는 2000년 1차 'EU-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근 7년 만에 제2차 회의를 리스본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배경은 중국, 미국 등의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대 아프리카 공세 강화에 대한 견제에 있음.
 - 동 회의에서는 그전까지의 '원조자·피원조자'의 관계로부터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 구축으로 이행하는 '리스본 선언'을 채택함.
- 미국 또한 오랜 기간 대규모 원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다수 석유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에서의 안전확보와 테러와의 전쟁수행을 위해 AFRICOM (US Africa Command)을 창설, 아프리카에 적극 관여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자원난을 겪은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뛰어듦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변모
 -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막대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교역 및 투자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급격한 러쉬가 EU, 미국 등 서방의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 하에 아프리카 국가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데 대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자극을 받은 인도 또한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인도는 중국을 의식하여 인도투자의 선의를 내세우면서 아프리카 시민을 위한 공공프로젝트(교육, 의료 등)의 수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 진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2007. 10월 '아프리카 자원외교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음.

아프리카 주요 국가 일반 현황 (2006년 기준)

국 가		인 구 (백만명)	GDP (억불)	1인당 GDP(불)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원유매장 (억배럴)	천연가스 (조m ³)
북 부	알제리	34	1,143	3,413	54,000	26,400	123	4.50
	이집트	72	1,079	1,430	20,500	33,100	37	1.94
	모로코	34	633	1,980	11,448	21,032	-	-
	리비아	6	452	7,590	33,655	12,333	415	1.32
서 부	나이지리아	144	1,166	810	58,872	27,402	362	5.21
	세네갈	12	106	891	1,408	3,041	-	-
	가봉	1.4	90	6,428	6,034	1,704	21	-
동 부	케냐	35	233	663	3,476	6,817	-	-
	탄자니아	39	117	299	1,898	4,070	-	개발중
	마다가스카르	19	55	288	896	1,465	개발중	개발중
남 부	남아공	47	2,552	5,377	63,767	69,941	-	개발중
	앙골라	16	284	1,760	33,762	11,277	90	개발중
	모잠비크	20	72	356	2,360	2,795	-	-
중 부	수단	36	376	1,037	6,190	8,048	64	-
	DR콩고	59	85	143	2,350	2,780	19	-
	차드	10	65	643	3,693	836	9	-

자료원 : KIEP

II. 중국·인도·일본의 대 아프리카 진출 동향

1. 중국

□ 교역 동향

-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규모는 '07년 650억 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해 미국에 이어 아프리카의 2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2004년부터 석유 및 광물자원 수입급증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
 - 2010년에는 중국-아프리카간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할 전망
- 주요 교역대상국은 남아공(19%), 이집트(6%), 나이지리아(6%), 알제리(5%) 등의 순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임.
- 교역품목을 보면,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입의 90% 이상이 원부자재이고, 수출 품목은 기계류 30%, 섬유류·신발류 20%, 자동차 10% 등 다양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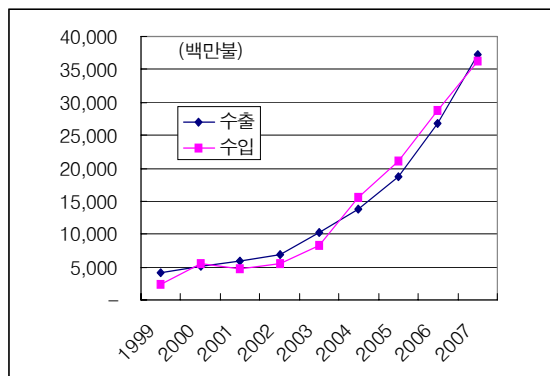
□ 직접투자 동향

- 중국은 2006년 말 누계기준 아프리카 48개국에 21.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중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3%를 차지함
 - 2006년 말 누계기준으로 중국이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는 수단, 잠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이집트 순임.
-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자원개발, 건설, 기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최근에는 자원개발투자가 많음.
 -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진출을 장려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는 가공산업, 농업, 자원개발, 인프라구축, 부동산개발 등임

□ 경제협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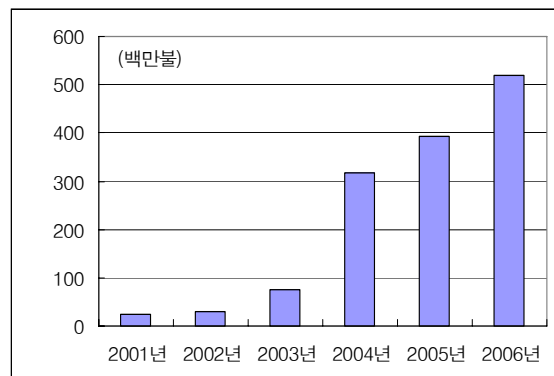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자원난을 겪은 중국은 석유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늘면서 2007년 상반기까지 중국기업 900여개사가 광물, 에너지 등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진출
- 또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기업 지원을 위해 배정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향후 5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차관, 연수 등 지원 프로그램도 크게 확대함.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추이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중국의 대아프리카 FDI 추이



자료원 : 중국통계연감(2007)

2. 인도

□ 교역 동향

- 2006~2007년도 인도-아프리카 교역규모는 200억불(전년대비 180% 증가) 수준이며 2003년 이후 교역증가율 지속 상승
- 인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나이지리아(30%), 남아공(21%), 이집트(10%), 케냐(6%) 등임.
 - 특히 인도는 2006년 들어 나이지리아로부터 원유도입을 시작하여 현재 인도 원유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인도는 최근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원유수입 급증으로 무역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수출품목인 정유, 차량, 의약품, 철강, 기계류 등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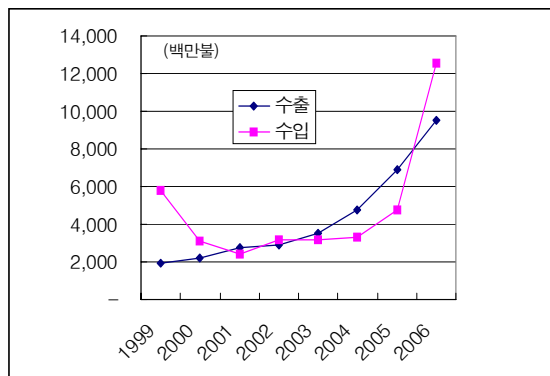
- 인도의 아프리카 투자규모는 대외 총투자의 3~5%, 누계기준 20억달러 수준으로, 에너지 관련기업의 자원확보형 투자와 인프라 프로젝트투자 증가로 최근 급증세를 보임.
 - 인도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주축으로 수단,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국가와 석유 및 광물자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인도는 주요 광구입찰에서 대체로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고 있음.

□ 경제협력 동향

- 냉전종식 후 인도의 對아프리카 정책은 경제협력 강화, 인도계 주민 끌어안기, 반 테러리즘 등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각종 기술지원,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극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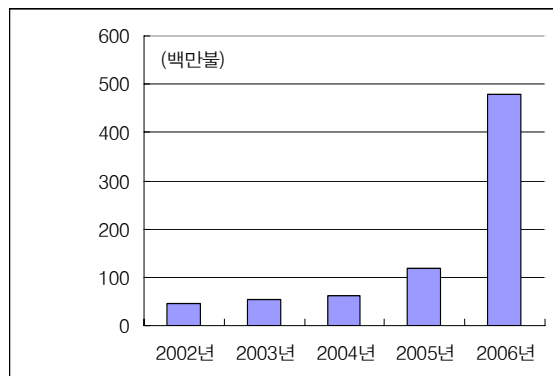
- 전 세계 NRI(재외 인도인) 약 2,500만 명중 280만 명이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공(130만), 모리셔스(86만), 케냐(10만) 등 동남부 주로 분포함.
- 중국의 對아프리카 진출이 확대되는 데 위기감을 느낀 인도 역시 경제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최초의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2008. 4월 개최하였음.
- 인도는 아프리카 14개국 정상을 뉴델리로 초청해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투자확대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음.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추이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인도의 대아프리카 FDI 추이



자료원 : 인도중앙은행, 2006년은 추정치

3. 일본

□ 교역 동향

- 일본과 아프리카의 교역규모는 2007년 2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 수출은 116억 달러, 수입은 150억 달러로 견고한 상승 추이를 보임.
- 주요 교역대상국은 남아공(46%), 수단(11%), 이집트(8%), 알제리(5%), 나이지리아(5%) 등임.
- 일본의 대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기계이며, 수입은 백금 등 비철금속 및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직접투자 동향

- 2006년 기준 일본의 대 아프리카직접투자는 9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502억 달러의 1.8%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2천5백만 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함.
- 대 아프리카직접투자 9억 달러 중 4.7억 달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5.3억 달러가 모리셔스¹⁾로 2개국에 집중됨.²⁾
 - 남아공에 대한 투자의 97.6%는 제조업으로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자원관련 투자로는 2007. 1월 스미토모상사가 철 및 망간 생산 광물자원회사 주식 20%(80억 엔)을 인수한 것이 있음.

□ 경제협력 동향

- 일본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은 TICAD³⁾를 기본 축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외교무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확보와 함께 일본기업들의 시장진출도 측면 지원함.
 - 일본은 1993년 TICAD 첫 개최이후 총 120억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했고, HIPC(중채무빈곤국)에 대해 30억 달러의 엔 차관채권을 포기한 바 있으며, 2005년 개최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원조를 3년내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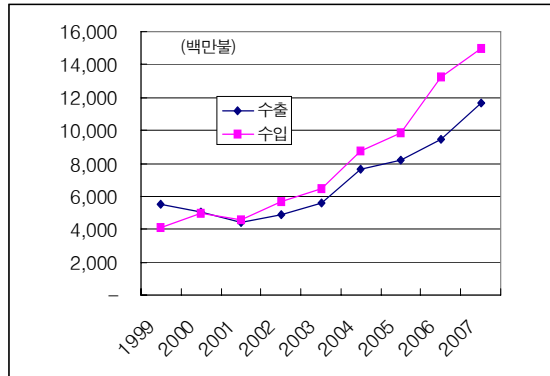
1) 모리셔스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일본기업이 대 인도투자를 위한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음.

2) 대남아공 4.7억불, 모리셔스 5.3억불 10억불 투자, 1억불은 리베리아에서 회수금액으로 순투자금액은 9억불

3)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 일본이 UN, 유 유WB 등과 공동 개최하는 아프리카개발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 1993년에 시작한 TICAD 프로세스는 1998년의 TICAD II, 2001년의 TICAD 각료급회의, 2003년의 TICAD III, 2004년의 TICAD 아시아아프리카 무역 투자회의를 개최. 2008.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TICAD IV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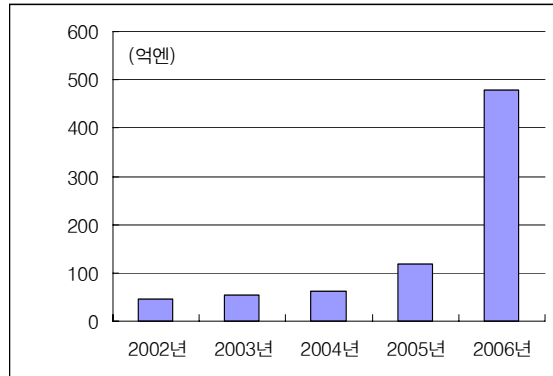
- 2006년 G8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하고 아프리카은행에 대한 차관을 매년 2억 불씩 제공기로 함.

일본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추이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일본의 대아프리카 FDI 추이



자료원 : 일본 재무성

III. 중국·인도·일본의 부문별 진출 동향

1. 자원 개발

가. 중국

☐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대 아프리카 진출 강화

-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자원난을 겪은 중국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 아시아, 중남미를 비롯 아프리카 자원부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 아프리카 산유국 유전개발 참여

-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단 등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제 원조를 앞세워 유전광구의 개발탐사권 획득
 - 중국은 1995년 수단과 유전개발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아프리카 20개국과 유전탐사 및 개발계약을 맺었으며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 해상 유전지분 49%를 인수한 바 있음.
 - 중국은 전체 석유 수요량의 30%를 아프리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주요 대상국은 앙골라(45%), 수단(18%), 콩고공화국(14%), 적도기니(9%) 등임.

중국의 10대 원유수입 대상국

(단위 : 만 톤)

순위	1996년		2000년		2006년	
1	인도네시아	630	오만	1,266	사우디	2,387
2	오만	566	앙골라	864	앙골라	2,345
3	예멘	377	이란	700	이란	1,677
4	이란	231	사우디	573	러시아	1,596
5	앙골라	166	인도네시아	458	오만	1,318
6	베트남	101	예멘	361	콩고	541
7	러시아	32	수단	331	적도기니	526
8	사우디	23	이라크	318	수단	484
9	말레이시아	22	베트남	316	베네수엘라	420
10	호주	19	카타르	160	리비아	338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연감

□ 광물자원 확보

- 남아공, 콩고민주공, 짐바브웨, 잠비아 등에서 구리 4만톤, 크롬 30만톤, 백금, 금 광산 등 확보
- 다양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광산 지분참여,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연관 산업으로의 파생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수익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형 플랜트 투자에 관심이 높음.

□ 자원개발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경제외교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막대한 원조, 차관을 제공하면서 자원개발에 참여
-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역할 분담하여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를 강화해 가고 있음.

■ CNPC(중국국영석유공사)의 수단 진출

- 1995년 수단에 진출한 CNPC는 연간 1만 5000톤 생산규모의 폴리프로폴린 플랜트와 연간 2000만 톤 생산규모의 플라스틱 백 플랜트를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 50억 달러를 수단의 석유개발 및 화학분야에 투자함
- 수단의 2대 석유 컨소시엄은 CNOPC와 Petorodar로 CNPC는 이들 메이저 컨소시엄에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개발 원유수송을 위한 석유 파이프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음.

■ Sino Steel, 페로크롬 광산개발에 230백만 달러 투자

- 중국 내 제2의 철강 유통업체인 Sino Steel은 남아공 Samancor Chrom과 50:50의 지분 비율로 페로크롬 광산개발 및 제련설비 건설프로젝트에 참여(2006. 11)

■ Jisco, IFM(International Ferro Metal) 광산개발 투자

- 중국 국영 철강생산업체인 Jisco는 남아공 IFM 지분의 29%를 인수, 현재 매년 12만 톤의 페로크롬을 IFM에서 도입하여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에 판매
- 최근에는 4.6억 달러 규모의 IFM 광산 확장 프로젝트에도 투자 (보유지분: 50%)

나. 인도

□ 중국과 차별화된 아프리카 접근

- 인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공헌도나 자원개발에 있어 중국·일본에 비해 부진했음을 자인함.
- 인도가 중국보다 2년 앞서 AfDB에 가입했음에도 중국에 비해 발언권이 약하고, 이 은행의 아시아지역 첫 이사회를 상하이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에 강한 자극을 받음.
- 중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노골적인 진출방식을 의식, 인도의 진출은 아프리카의 전반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 인도정부의 'Pan African e-Network project'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인도 언론은 중국의 투자방식을 '新제국주의'라고 비난

□ 인도 정부도 대 아프리카 자원외교 개시

- 인도정부도 자원외교에 나서 2007. 10월 나이지리아, 남부 아프리카를 순방,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관계 강화에 합의하고, 투자 및 조세협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기로 함
- 인도는 원유수요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량은 수요량의 16%를 차지함. (The Economic Times India)
- 인도국영석유회사 ONGC 등 석유관련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2006년 ONGC-MITTAL의 합작사를 통해 6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개 광구에 대한 선취특권⁵⁾을 획득함.

4) 전 아프리카국가간 위성 및 광통신망 연결 프로젝트. 인도는 동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으로 2004년 압둘칼람 대통령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시 발표되었으며 2005. 10월 AU(Africa Union;아프리카연합)와 인도정부간 MOU가 체결됨.

5) 선취특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소유주가 제3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일정조건으로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소유주로부터 부여된 권리를 뜻함.

- 동 건은 원유확보를 조건으로 한 패키지형 투자로서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독식을 막기 위해 인도가 대규모자금을 투자하여 자원확보 경쟁에 뛰어든 첫 번째 사례로 보고되고 있음.
- 원유 외에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2007년 타타스틸은 코트디부아르의 국영기업과 철광석 광산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모잠비크의 탄광개발에도 호주기업과 합작투자함.
- 이 밖에 베단타그룹의 베단타 리소시즈는 잠비아에서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ONGC 비데쉬, 수단유전 지분 취득

- 인도 국영기업인 ONGC(Oil and Natural Gas Corp.)의 해외투자부문 자회사인 비데쉬사는 7.2억 달러를 투자하여 나일강 상류 유전(Upper Nile Oilfield)의 지분 25%를 획득한 데 이어 2억 달러 규모의 741Km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음.

■ ONGC-미탈의 나이지리아 진출

- ONGC Videsh (ONGC의 해외사업부)와 세계 1위의 철강사인 미탈그룹은 각각 49.98%, 48.02%의 지분을 투자(나머지 2%는 SBI에서 보유)하여 합작사를 설립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자원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 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신규 정제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발전소·철도 건설에 6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개 광구를 획득한 바 있음.

■ 베단타그룹의 잠비아 구리광산 프로젝트

- 에너지광물 기업인 베단타자원(Vedanta Resources)은 2004년 잠비아 최대의 구리광산인 Konkola Copper Mines의 지분 51%를 획득함. 이후 Konkola 광산은 제련, 정제, 필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25만 톤의 생산캐퍼를 갖고 있음.
- 쿨딕 카우라(Kuldip Kaura)회장은 “풍부한 원자재 환경이 아프리카 투자를 견인했습니다. 우리의 Konkola 광산 투자액은 총 7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잠비아 최대 규모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연 50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 일본

□ 에너지·자원 정책 방향 전환

-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도 시장중심적 관점에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방향 전환
 - 2006년 일본정부는 에너지 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전략 '신 국가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자원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해외자원개발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030년까지 40%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움.
- 일본의 원유공급은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중동이 점하고 있어, 중동에 편중된 공급구조임.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캐나다 및 남미와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의 원유공급원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아프리카는 아직 미개발광구가 많고, 외국자본에 호의적인 국가가 많은데다 광구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개발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이 자주개발권을 획득하기 쉬운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 아프리카 자원외교 본격화

- 일본은 2007. 10월 '아프리카 자원외교 전략' 발표하고, 과학기술협력과 원조 자금을 앞세워 대 아프리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
 - 2007년말 일본 경제산업상이 남아공과 보츠와나를 방문,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자원외교를 전개
 - 보츠와나는 일본의 위성기술을 응용한 공동 자원탐사에 합의하고,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남아공과 상호투자협정을 협의키로 하였으며, 이외 나이지리아의 우라늄,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사업권을 확보함.

□ 지분참여 등 현지화 전략 추구

- 일본기업들은 과거 단순 수입에서 벗어나 광산기업 지분참여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기업 5개사 리비아 유전개발권 낙찰

- 2005년 리비아정부가 실시한 유전광구 공개입찰에서, 신일본석유개발, 석유자원 개발, 제국석유, 국제석유개발, 미츠비시상사 등 5개사가 연합하여 리비아에서 처음으로 총 6개의 광구 개발권을 낙찰 받음.
- 제국석유·미츠비시상사 연합이 2개 광구, 신일본석유개발·미츠비시상사 연합, 석유자원개발·신일본석유개발·미츠비시상사 3사 연합, 국제석유개발·프랑스 토탈 연합, 석유자원개발이 각각 1광구씩 획득함.

■ 미츠비시상사의 아프리카에서의 석유개발

- 리비아의 육상·해상 제4광구에서 석유,가스 탐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튀니지 공화국에서는 육상의 미개발 가스전 Chaal 광구 평가정의 굴착작업을 진행 중.
- 서아프리카 가봉에서는 미츠비시상사의 자회사인 MPDC 가봉(주)을 통해서, 해상 5광구에서 석유의 탐사·개발 및 생산 사업을 추진. 보드 로아·멜로 광구에서 개발·생산 사업, 에베네 광구 및 아조베 광구에서 탐사 실시
- 앙골라 해상 3블럭 지역에서 앙골라석유(주), 에이펙스석유(주) 등을 통해 석유 탐사·개발·생산·판매 사업을 추진

2. 건설·대형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

가. 중국

☐ 유·무상 원조자금 지원을 통한 수주

- 중국은 막대한 유·무상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 및 플랜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유·무상 원조자금의 규모는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부채탕감도 추진 중임.
- 이러한 원조자금중 상당액은 인프라 건설 및 플랜트 수주를 통해 자국기업으로 환원되고 있음.

☐ 다양한 경제협력활동 전개를 통한 간접 지원

- 지난 2006. 11월 개최된 제3차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에서 원조확대, 만기부채 탕감, 우대차관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8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2007.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도 중국은 향후 3년간 200억 달러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는 앙골라,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대형 사회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

☐ 현지 금융부문 진출을 통해 중국기업의 플랜트 수주 지원

- 2007. 10월 중국공상은행(ICBC)이 남아공 스탠다드뱅크 지분 20%를 56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대형 및 중소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
- 같은 시기 중국국가개발은행(CDB)도 나이지리아 최대은행인 UBA와 제휴 관계를 맺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함.

■ COVEC, 남아공 건설 프로젝트 수주

- COVEC은 지난 2005년 남아공 현지 업체와 조인트벤처(Covec-MC Joint Venture)를 결성, U\$70백만 규모의 수로건설 프로젝트 수주
- 동사는 입찰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현격히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입찰전략에 대한 남아공 건설업체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 후 중국 업체의 현지인 노동력 착취 및 중국 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등을 비판하는 등 중국 업체 견제가 본격화됨.

■ Citic Acre, 건설 및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 중국 업체들의 컨소시엄인 Citic Acre은 2006년에 남아공 Mittal社가 발주한 U\$1억 규모의 코크스 제조로(Coke oven battery) 건설 및 가스 플랜트 보수 프로젝트를 수주

나. 인도

□ 수출입은행의 신용기금 확대

- 인도 수출입은행(EXIM Bank)은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Focus Africa' 정책에 따라 15억 달러까지 신용기금액을 확대한 바 있음.
- 이 기금은 주로 교통, 전력, 철도, 제조업 역량강화 등에 사용됨.

□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도, 통신부문 진출 활발

- 릴라이언스 그룹은 동 아프리카에 이어 이집트의 정유, 석유화학시설에도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국영 철도회사인 RITES와 IRCON은 수단과 모잠비크에서 철도건설 및 운영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함.
- 인도는 풍부한 IT 인력 및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남아공 IT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

□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India-Africa Forum Summit)

- 2006. 11월 개최되었던 ‘중국-아프리카정상회의’에 자극 받아 인도도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2008. 4. 8~9일간 뉴델리에서 개최함으로써 인도기업의 대 아프리카 진출을 간접 지원
- 인도-NEPAD⁶⁾, Team-9 Initiative⁷⁾, Pan African e-Network project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접근 시도
 - 중국의 자원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과 달리, 인도는 아프리카의 역량구축과 육성(Capacity Building & Empowerment)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 릴라이언스의 동아프리카 진출

- 인도 제1의 기업인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는 2007. 9월 Gulf Africa Petroleum Corporation(GAPCO)의 인수합병을 통해 동아프리카 정유시장에 강자로 부상함.
- GAPCO사는 아프리카 지역에 강력한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인도 석유 제품의 아프리카 수출확대가 예상됨.

■ 에사르 오일(Essar Oil)의 케냐 진출

- 릴라이언스의 예와 비슷하게 Essar Energy Overseas (Essar Oil의 자회사)은 KPRL(Kenya Petroleum Refineries)의 지분 50%를 인수, 케냐에 진출함. 몸바사(Mombasa)에 위치하고 있는 KPRL사의 연간 생산량은 400만 톤 수준으로 LPG, 가솔린, 디젤, 경유 등을 생산하고 있음.
- Essar는 이 외에도 마다가스카르에 3개, 나이지리아에 1개의 유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유시설에 투자한 것은 처음임. 지분투자에 소요된 자금은 총 300억 루피(약 7,320억원)로 알려졌다며 현재 4억~4.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증설 작업을 진행 중임.

■ Tata 그룹, 남아공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Tata 그룹의 통신사업 계열사인 VSNL은 남아공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5년에 남아공 제2 유선통신 사업자 면허를 취득함. (VSNL은 동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로서 보유지분은 26%)

6)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AU 주도하에 추진되는 전략적 Initiative로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계획

7)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기술지원 프로그램

다. 일본

□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해 플랜트건설 逆 제안

- 일본정부의 ODA 차관 및 무상 원조 시, 동 자금을 이용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의 참여 추진
 - 일본은 대 아프리카 외교의 축인 TICAD⁸⁾를 통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127억 달러의 ODA를 제공함.
 - 일본은 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해 플랜트 건설 등을 역으로 제안하는 형태임

□ 북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철도, 공항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

- 히타치(Hitachi)는 남아공 전력공사 Eskom이 발주한 대규모 화력발전 소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71억 달러의 보일러 공급입찰 수주
 - 입찰 수주액 : Medupi 발전소(U\$27억), Bravo 발전소(U\$24억)
- 미쓰이(Mitsui)는 남아공 국영 물류기업인 Transnet이 발주한 석탄운반용 전동기관차 공급입찰 수주(2006년)
 - 입찰금액 : U\$5.4억, 공급대수 : 110대

□ 석유 정제 및 판매 분야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

- 아프리카에서의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유국조차도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향후 석유 정제 및 판매 분야가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8)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 일본이 UN, WB 등과 공동개최 하는 아프리카개발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 1993년에 시작한 TICAD 프로세스는 1998년의 TICAD II, 2001년의 TICAD 각료급회의, 2003년의 TICAD III, 2004년의 TICAD 아시아-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 개최에 이어, 2008.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TICAD IV 개최 예정.

- 정유시설 등 대형 플랜트 건설과 유전개발권을 세트로 한 제안을 해당국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 신일본석유 등 5개사 리비아 유전개발권 확보

- 2005년 리비아정부가 실시한 유전광구 공개입찰에서 신일본석유, 석유자원개발, 니키(日揮), 日本郵船 등 5개사가 리비아국영회사와 합작하여 정유소 건설 등을 포함한 일괄개발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유전개발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
- 총 사업비는 5천억 엔은 대부분 일본의 ODA,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를 통해 조달.

■ 모잠비크 알루미늄 정련(精鍊)프로젝트(MAZAL I, II)

- 모잠비크의 풍부한 수력발전을 이용한 알루미늄 정련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1998년부터 8.2억불 규모의 제1기공사, 2001년 10억불의 제2기(MAZAL II), 확장공사가 실시됨, 동 알루미늄제련소는 연간 51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세계최대 규모.
- 모잘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영국 및 국제기관의 융자로 실시되었으며, MAZAL II 프로젝트는 일본무역보험, 국제협력은행등의 신용제공 및 융자와 미츠비시상사의 25% 자금 출자가 있었음.

3. 상품·서비스 등 교역 및 투자

가. 중국

☐ 관세혜택 부여 및 FTA 체결 추진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불균형 시정 및 상품교역 확대를 위해 최빈 개도국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 중국은 아프리카 25개국 190개(400개로 확대 예정)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아프리카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품목 변화

- 중국기업의 대 아프리카 수출품목이 경공업 제품에서 기계, 전기제품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출액이 급신장하고 있는 차매이자동차는 아프리카 13개국에 딜러를 지정하고, 녹다운 부품조립 거점을 1개소 설치했음.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증가로 위기의식 고조

- 아프리카의 대 중국 수출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2007년 '이집트 산업에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산'에 대해 적절한 보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 남아공도 2008년 말까지 중국산 섬유제품 31개 제품군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중임.

□ 금융부문으로의 진출도 가속화

-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 및 사회인프라 부문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 산업 진출을 강화
 - 2007. 10월 중국 공상은행(ICBC)은 55억불을 투입, 아프리카 최대 은행인 남아공 Standard Bank 지분 20%를 인수함.
 - 중국은 아프리카 금융산업 진출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자원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된 대 아프리카 투자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자원수탈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회피

■ 통신 분야

- 2000년 이집트에 진출한 화웨이(Huawei)사는 이집트 국영통신회사인 이집트 텔콤과 활발히 프로젝트 진행
 - 이집트 텔콤은 2003. 9월 차세대 이집트 통신방식으로 CDMA WILL 기술을 선정하고 2004년 화웨이를 10만 회선 공급자로 확정하였음.
 - 이로서 화웨이는 이집트 텔콤으로부터 상이집트와 수에즈운하, 시나이 지중해 지역의 통신망 구축권을 획득하였음.
- 동사는 이집트 텔콤과 공동으로 CDMA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유선 통신라인의 확충과 다양한 형식의 유선 통신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3백만 달러의 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동 지역 서비스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화웨이 이집트 프로젝트 진출 현황>

프로젝트	시기	내역
CDMA WILL구축	2003.9	-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총 10만 회선 공급자
카이로 통신망 개선	2006.8	-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기술 사용 3년간 작업
제3무선 통신사업자 Etisalat 통신시설 구축	2006.9	- Ericsson과 공동으로 제3 무선 통신 사업자 통신기반 시설 구축 낙찰 - 전체 사업규모는 12억 불
무선통신사업자 Mobinil 통신인프라 구축	2008.1	- 전체 사업규모 2억 불 - 통신인프라 구축 작업

자료원 : NOOZZ

나. 인도

□ 아프리카 내 인교(印僑)와의 네트워크 활용

- 인도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경제관계가 역사적으로 긴밀하며, 아프리카 내 인교와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있음.
- 7세기경 인도 구자라트 출신상인들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 인도양 무역에 종사한 이후, 19세기에는 광산, 철도건설, 플랜테이션에 투입될 노동자가 대거 유입
- 구 영국식민지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는 상권의 50% 이상을 인도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대 인교 밀집지역인 남아공 더반에서는 인도 IT기업 Ramco Systems가 시정부와 계약을 체결, IT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FTA 체결을 통한 교역 및 투자 확대

- 인도는 모리셔스와 금융서비스, 투자 및 인적교류 등 폭넓은 경제협력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CECPA)을 추진하고, 이집트, SACU⁹⁾와는 각각 FTA 전단계 조치로서特惠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타 경쟁국,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높은 물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도는 관세인하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아프리카와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

□ 제약 및 의료, IT 등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분야도 활발

- CII(인도 전경련,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는 인도-아프리카 통상 관계 증진을 위한 5대 성장엔진으로 ‘제약 및 의료, IT, 수처리 및 수관리, 식품가공, 교육’을 발표한 바 있음.

9)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는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서 회원국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등 5개국임.

- 제약업체로는 램박시가 1977년에 나이지리아에 최초의 해외 현지공장을 설립한 이후 2007년에는 남아공 제약업체인 베-탭스를 7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본격적인 아프리카 시장공략에 나섬.
- 인도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Pan-African e-Network'가 구축되면 인터넷전화(VoIP),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서비스 등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로써 VSAT장비나 각종 응용프로그램 관련 인도 IT 업체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예상됨.

■ 램박시의 남아공 진출

- 인도 제1의 제약업체인 램박시(Ranbaxy Laboratory)는 2007년경 남아공의 제약업체 Be-Tabs를 7천만 달러에 인수하고 본격적인 아프리카 공략에 나섬.
- Be-Tabs는 남아공 5위의 복제약 생산업체로서 램박시는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현지생산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램박시는 이 외에도 2개의 법인(Sonke Pharmaceuticals, Ranbaxy South Africa)을 남아공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음

■ 타타 그룹의 아프리카 진출

- 타타 그룹은 그 어떤 인도의 기업집단보다도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음. TATA Steel(ferrochrome, 크롬철 관련 프로젝트), TATA Tea(instant coffee), TATA Motors(상용차), VSNL(통신산업) 등 계열사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아프리카에 그룹차원에서 TATA Africa Holding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TATA Tea의 경우는 우간다를 전 세계 커피 수출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지역에 이어 유럽과 중국지역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우간다는 에티오피아에 이어 2번째의 아프리카 커피 산지임)
- 남아공에 오래전부터 진출하여 상용차 사업을 해 온 TATA Motors는 남아공에서의 성공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며, 보츠와나(Botswana) 레소토(Lesotho), 나미비아(Namibia)등 인접국에 딜러망을 강화하고 있음
- TATA Africa는 아프리카 10여 개국에 진출해있으며 투자액은 1억불 이상임. 동 사는 자동차, 철강, 엔지니어링, 화학제품, IT, 호텔 등에 분야에 집중, 연간매출은 2.5억불에 이름.

다. 일본

□ FTA, 투자보장협정 미흡으로 소극적 대응

- 일본은 아프리카 국제입찰시장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FTA 및 투자보장협정 미흡으로 다소 소극적 자세임.
- NEC사는 남아공 현지기업(Gijima사)와 합작투자하여 남아공 내무부 지문 인식기 입찰에 성공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심 진출

- 남아공진출 도요타, 닛산 및 관련 부품업체들은 남아공에 제조, 판매거점을 두고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구미 및 일본으로의 수출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들은 현지 정부의 '자동차산업우대조치'¹⁰⁾,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¹¹⁾, EU의 '무역개발협력협정'¹²⁾ 등의 이점을 활용한 전략을 추진
- EU·남아공 간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남아공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되었음.
- 닛산자동차는 이집트를 중동, 북아프리카의 제조·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전략
- 이집트에서 트럭 및 승용차 제조하여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이집트와 FTA협정을 체결한 모로코, 요르단 등으로 무관세 수출할 예정
- 종래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판매하는 닛산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출한 것이었으나, 향후 현지 생산체제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

10) 자동차산업우대조치(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는 남아공 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차량금액에 비례해서 부품수입시 면세가 되는 조치로 현재 2012년까지 유효함.

11)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 Growth Opportunity Act)은 미국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0. 10월부터 시행한 법임. AGOA 유효기간은 2015. 9월까지이며, 특정품목에 대해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받으며, 수혜국가는 사하라 이남(Sub Sahara) 39개국임.

12) 무역개발협력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은 2004. 5월 발효된 남아공-EU FTA로서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 포괄적 협정으로 EU는 2010년까지 남아공 수출품의 95%를 무관세화함.

■ 도요타자동차의 남아공 진출

- 도요타는 1996. 10월 남아공화국에 제조판매회사를 설립, 종업원은 7,410 명으로 자동차 및 엔진의 제조 판매를 개시함.
- 도요타자동차의 남아공 진출을 계기로, 덴소, 도요타고세이 등 도요타에 납품하는 부품기업이 대거 남아공에 진출하게 됨

■ 닛산자동차의 이집트 진출

- 닛산자동차는 2004년 60억 엔을 투자하여 이집트의 트럭공장을 매수하여 연간 1만 7천 대의 트럭 생산능력을 보유. 2006. 1월에는 카이로공장에서 제조한 승용차(써니) 판매를 개시함
- 2004년~2005년간 6,000만 달러, 2010년까지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집트를 중동, 북아프리카의 공급거점으로 삼을 계획

IV. 시사점

1. 자원 개발

☐ 아프리카 자원개발 수요 증가와 경쟁 격화

- 아프리카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자원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에 이어 인도, 일본도 자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원협력 강화가 시급함.

☐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체제 강화

- 아프리카는 통치권자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 정상회담이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음.
- 중국은 매년 국가주석을 비롯 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아프리카 방문이 이어지고, 인도 또한 대규모 정상회의를 최근 개최하였음.
- 아프리카 진출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 추진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진출리스크도 완화해야 함.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유전개발 참여비중 제고

- 우리나라의 해외지역별 유전개발 참여 비중을 감안할 때, 미개발 유전이 많은 아프리카지역 유전개발에 보다 적극 참여해야 함.
- 우리나라의 해외지역별 유전개발 참여 비중: 북미 27%, 아시아 22%, CIS 16%, 아프리카 13%, 중동 5% 등
- 중국의 경우 1996년에는 아프리카 내 앙골라 1개국에서만 원유를 수입했었으나 2006년에는 수단, 적도기니 등 5개국으로 확대됨.

□ 자원개발과 사회 인프라 건설 연계 진출

- 개발자금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발전, 철도, 정유 플랜트 등 사회 인프라 건설 참여업체에게 자원개발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5대 전략광물 부존국가인 남아공, 잠비아, 콩고 등과 유전 보유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대형 플랜트·자원개발 관련 기업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

2. 건설·대형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

□ 아프리카 내 인프라 개발 수요 급증

- 최근 아프리카 각국은 내전 종료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본격 추진, 이에 따라 전력, 통신, 항만, 도로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선진국 및 개도국과 차별화되는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 저개발국인 아프리카는 자금력 및 자체 능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 외부의 지원이 필요함.
- 아프리카 자원 및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은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요 창출, 타당성 조사, 파이낸싱, 발주 등 모든 과정을 묶은 패키지형 진출이 되어야 함.

□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 참가로 수주가능성 제고

- 앞으로 우리 정부의 원조자금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확대되므로 우리 기업은 사업타당성 조사(F/S)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참가함으로써 수주가능성을 높여야 함.

3. 상품·서비스 등 교역 및 투자

☐ 교역 파트너 및 투자 대상지로 부상

- 아프리카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세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원조대상국이 아닌 교역파트너로 부상 중임.
- 또한 과거 자국산업 보호정책에서 탈피, 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임.

☐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 추진

- 중국, 인도, 일본은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공동체나 개별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이들에 의한 시장 선점의 우려가 있음.
- 중국은 2007. 9월 중국 사절단이 남아공을 방문, SACU와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인도는 2007. 10월 SACU-인도 FTA 협상을 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남아공과의 FTA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권역별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거점국가로 선정, 교역 및 투자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함.

☐ 해외 ODA 시장에서의 적극적 참가

- 유엔은 원조공여국의 ODA 규모를 GNI 대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0.05%(4.5억 달러)에서 0.25%로 높일 계획임.
- 2006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대 아프리카 ODA 지원액은 434억 달러이며, 그중 399억 달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됨.
- 우리 기업은 해외 원조시장 수주동향과 입찰정보 조기 입수, 현지 에이전트 구축 등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함.

□ 화교·인교 네트워크 활용방안 강구

- 미국을 비롯한 서구기업들은 화교(3,500만 명), 인교(2,500만 명)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화교는 약 80%가 동남아에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아프리카로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아프리카에는 약 280만 명(11%)의 인교가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우리 교포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비교적 초기 진출하여 현지 상권을 장악한 인교, 화교와의 네트워크 연결 시도를 검토해야 함.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현지 반응조사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3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3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작성자

도쿄 무역관	홍상영 차장
베이징 무역관	김명신 과장
뉴델리 무역관	박민준 과장
나이로비 무역관	나창엽 관장
카이로 무역관	권세영 차장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고일훈 과장
알제 무역관	박범준 과장
라고스 무역관	심자용 대리
중아CIST팀	박태화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발행인 | 흥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4월 11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